



진안군노인회, 노인건강복지사업 추진

진안군노인회(회장 구동수)는 25일~27일 3일간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노인건강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건강복지사업은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 교육훈련 등 의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 2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어 추가로 하반기에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어르신 67명씩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건강강의, 건강측정 및 심신자유, 흥심족욕체험, 공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교육을 진행한다.

전춘성 군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자봉센터, 희망나눔 가족봉사단과 환경캠페인

무주군자원봉사센터는 26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희망나눔 가족봉사단과 ‘기후위기 대응! 환경캠페인!!’ 전개했다.

구천동 어사길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O X 퀴즈를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자 캠페인 흥보를 전개하였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탐방객들도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방학기간을 통해 부모님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청소년들 또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캠페인 활동에 동참하여 티의 모범이 되어지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방학기간 동안 구천동 어사길 탐방객들과 무주시장 장터를 찾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5회정도 진행 될 예정이며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의 한에서 흥보물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전개 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안성면, 주민들 이웃돕기 성금 쾌척

무주군은 20일 안성면 생활개선회(회장 안옥빈) 회원들과 안성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형재)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왔다며 밝혔다.

1백만 원을 기탁한 안성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코로나 19 여파와 긴 강마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며 “무주군 여성농업인들의 전문 역량을 기우고 지도자로서 자질 향상과 후계농업인 육성에 주력해온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마음이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하게 가 닿길 바란다”라고 입을 모았다.

안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탁한 80만 원은 작은 목욕탕 이용 주민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전한 것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무주군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돋는데 쓰일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주생면 임중규씨, 따뜻한 나눔 100만원 전달

남원시 주생면(면장 노일환)은 지난 25일 개인 독지기(임중규)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호우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돋는데 사용하고 싶다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임중규씨는 “이번 폭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으며, 이에 노일환 주생면장은 “전달해 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드린다며, 귀중한 성금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성초 학교 생활이 정말 행복했다”

전주대성초, ‘야호! 신나는 별빛사랑 친구사랑 캠프’ 운영

전주대성초등학교(교장 송영임)는 25~26일 1박 2일 동안 ‘야호! 신나는 별빛사랑 친구사랑 캠프’(이하 야호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야호 캠프는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첫아오는 오케스트라 공연, 친구사랑 어울림 체육활동, 주먹밥 요리 실습, 별빛사랑 천체관측, 우리미니 탐구 활동 등 다채롭고 풍성한 활동을 준비해 학생들의 즐거움과 학교생활의 민족감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서는 가브리엘스 오보에 사계 중 여름, 학교 가는 길, 왕별의 비행 라디오 키 행진곡 등 친근한 음악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을 높였다.

이후 이어진 체육활동에서는 짹 축구, 비석치기, 종이컵 타구공 놀이 등 친구 간의 정서적 교감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친구를 배려하고 협동심을 키웠다.

유부조밥과 주먹밥을 만들어보며 요리의 즐거움을 느껴보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친구들과 나눠 먹기도 했다.

별빛사랑 천체관측 시간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신기한 천문학 이야기, 여름 별자리 찾아보기,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 관찰 등을 통해 별을 만나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아이들이 기다렸던 시간 중의 하나는 교실 안에서 친구들과 텐트를 쳐보고 캠핑하는 기분으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서로에게 짐이 드는 행복한 시간도 보였으며, 다음날 아침에는 학교 주변 미술을 산책하면서 여름 히늘과 물꽃을 만나기도 하고, 고덕생활축구장에서는 전교생이 다 같이 축구를 하며 1박 2일의 즐거웠던 캠프활동을 마무리했다.

김리도 학생(6년)은 “친구들, 동생들과 함께 한 1박 2일 캠프가 오랫동안 가슴 깊이 남을 추억이 될 것 같다”며 “대성초의 학교 생활이 정말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태권도학과, 팀 대항 종합경연 2연패 달성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최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 세계태권도 한미당에 참가, 태권도공연예술 분야인 ‘팀 대항 종합경연’에서 정상에 오르며 2연패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57개국, 5,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대회 마지막 날에 진행된 팀 대항 종합경연 종목에서 우승했다.

이에 따르면 예선전부터 최고점을 받은 전주대학교 불멸 팀은 5분 30초 동안 펼쳐지는 태권도 종합예술 분야에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의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격전을 모티브로 삼아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담은 치열한 해전을 다이나믹하게 연출하면서 역대 대회 최고점을 받아 1위를 차지하면서 2연패를 달성한 것.

전주대 우승을 아끈 김수찬 주장은 “2019년 선배들이 1위와 3위를 차지해 부담이 커지만 선배님들과 부모님들이 직접 경기장에서 응원해 준 덕분에 이뤄낸 결과”라며 “등판의 자부심을 담아 2024년 3연패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태권도학과 이숙경 학과장은 “문화·관광 분야에서 태권도의 글로벌 문화회를 주도하는 특성화학과로 올해 제2회 전주대학교 종합대전 전국 태권도 품새·격파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북형 문화·관광산업분야를 특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024년 태권도학과 입시 정원을 늘리고,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무역학과 BK21사업팀, 국제학술대회서 수상

전북대학교 4단계 BK21 본부글로컬 프로토이어 미래무역인 재양성팀 대학원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신우·사예명(지도교수 김민호) 박사과정생과 김해주·한영태(지도교수 박은숙) 석사과정생은 최근 중국에서 열린 2023년 한국무역학회의 한·중·일 국제학술대회’에 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장신우 박사과정생은 R&D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의 조절효과’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로 최우수논문상으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흥국가(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강도 및 국제화 정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공동 영향(joint effect)을 연구해 국제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기업 관리자에게 의미 있는 기업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또 사예명 박사과정생은 “중국의 서비스 산업에서 업계경



쟁이 기업의 국제화와 실적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

농협 부안군지부, 새만금 챔버리 성공 기원 농업인 음악회 성료

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김삼형)는 지난 25일 부안군예술회관에서 열린 2023 세계 스키아트챔버리 성공 기원을 위한 농업인 편마음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 도·군의원, 조합장, 농업인단체장, 유관기관장 등 500여명의 부안군민이 참석했다.

이번 음악회는 2023 세계스키아트 챔버리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농업과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부안 출신 이진권 단장의 지휘로 국내 최고 수준의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동 공연을 통해 미아웨이, 낭만에 대하여, 인연, 거위의 꿈, 나가개는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과 부안동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민요 등을 관객과 함께하며, 한여름 밤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펼쳤다.



김삼형 지부장은 “이번 편마음 음악회가 집중호우로 상심이 큰 농업인과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군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장수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체험 교육 실시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지난 25일 장계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라가는 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소방 진로탐색과 직업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역할 설명과 소방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이날 교육은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작용하는 방화복과 안전장갑 및 관장 등 각종 소방 장비들을 학생들이 직접 작용하는 시간을 가지며 미래 소방관을 꿈꾸는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형찬 예방안전팀장은 “이번 교육으로 학생들이 소방활동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호기심 충족을 통해 소방관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강제처분 훈련

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6일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강제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골든타임 확보 및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차량 4대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들이 참여하여 순창 관내 정체 구간인 순창시장 및 순창타미널 일원에서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내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用水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출동 시 자체 방송시설 활용 홍보 방송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모의훈련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길터주는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 백운면 지사협, 마을복지 실현 홍보부스 운영

진안군 백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희곤, 이하 협의체)는 지역주민과의 관계향상 및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9회 백운면민 회합 문화예술 축제 한미당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협의체는 백운면민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앞으로 추진될 마을복지 사업에 대해 홍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박희곤 위원장은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 백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 복지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